



社團法人新羅崇嚴會 理事長 金秀吉

序 文

民族文化 創出의 主役으로서의 新羅金氏

21세기의 不可解한 시대를 눈앞에 둔 오늘날 新羅金氏의 門中史를 총체적으로 정리·편찬한 《新羅金氏王孫史蹟寶鑑》을 발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이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신라김씨는 우리나라 역사의 태동기인 신라초 경주 雞林에서 탄강하신 大輔 閼智公으로부터 그 연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천년 신라왕국의 가장 번성기를 이끌어 왔던 王朝時代를 거쳐 高麗·朝鮮 두 왕조 1천년의 시간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貫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至親으로 때로는 남남으로 경쟁과 협조를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관향이 달라 實定法上 남남처럼 되어 있어도 또한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한 할아버지의 자손임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정변에 의해 사료가 逸失되어 系代가 불분명 해졌다 하더라도 핏줄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각 관향의 譜牒에서도 한결같이 大輔公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음에야 우리는 同祖 同根의 신라김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신라김씨의 동조 동근의식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남겨준 위대한 業績까지도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의 것인양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볼 때 더구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사단법인 ‘新羅崇嚴會’와 ‘新羅金氏聯合大宗院’에서 先賢들이 남긴 업적과 위대한 史蹟·遺物을 글과 컬러사진을 곁들여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게 新羅金氏王孫史蹟寶鑑으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천만 宗人들의 가슴속에 동조 동근의식을 고취 시키는 물론 慶州를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현들의 위대한 史蹟·遺物들을 내것처럼 아끼고 가꾸는 애정의 불씨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を 읽다보면 국사를 편찬하고 당시의 현장을 기록한 일이여러번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의 기록은 고사하고 편린마저 찾아 볼 수



新羅金氏聯合大宗院 總裁 金 相 祚

없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흥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편찬사업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寶鑑 속에서나마 찬란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던 역사의 현장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新羅金氏 王朝가 이끌던 찬란한 신라의 역사가 장막을 내린지 무려 1천년만에 모조록 한 마당에 그 자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위대한 선현들께서 이나라 이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쌓아올린 업적을 되새기면서 자긍심을 갖고 自己啓發을 위한 충전의 기회로 삼가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보감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金鎭奭 전이사장과 각 貫鄉 會長 및 여러 종친과 편찬 실무책임을 맡았던 金漢雄 · 金澤守 · 金振海이사 외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음을 밝혀둡니다. 무엇보다 이 寶鑑의 上樑을 위해 많은 시간과 물량을 투입해 협조해 주신 韓嶽譜學研究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11월

社團法人 新羅崇嚴會 理事長 金 秀 吉

新羅金氏聯合大宗院 總裁 金 相 祚